

강원도 지역 사찰 간행 불서에 대한 서지적 연구

A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Buddhist Scripture Published
in Temples in Gangwon Province

최 경 훈 (Choi, kyung-hun)*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맺음말 |
| 2. 강원도 지역 사찰판의 간행 | <참고문헌> |
| 3. 강원도 지역 사찰판의 특성 | |

< 초 록 >

이 연구는 강원도 지역 사찰 간행 불서에 대하여 시기별·지역별·주제별로 분석하여 그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18개 사찰에서 61종의 불서가 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적의 간행은 경상도, 전라도 등 다른 지역과 같이 16-17세기에 44종(72%)으로 빈도가 높았으며, 다른 지역이 조선 후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과 달리 19세기에 다소 증가하는 차이점을 보였다. 간행 사찰은 금강산의 표훈사(16종)·유점사(10종)·건봉사(5종)와 설악산 신흥사(13종) 등 금강산·설악산 사찰을 중심으로 주로 강원도 북부 지역에 있었다. 주제별로는 『誠初心學人文』 등 강원 교재(15종),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등 불교 의식집(12종), 『妙法蓮華經』과 같은 공덕경(8종)의 비중이 높았다. 각수는 41종의 서적에서 112명이 확인되며, 대부분 강원도 내에서 활동하였다. 경판은 설악산 신흥사판 13종, 보개산(철원) 사찰판(석대암·성주암) 2종 등이 전하고 있다. 이 연구가 향후 지역 불서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사찰의 역사와 성격, 위상의 변화를 살피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要語: 금강산, 유점사, 표훈사, 신계사, 불서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Buddhist scriptures published in temples in Gangwon-do by analyzing them by period, region, and subject matter. A total of 61 Buddhist scriptures were published in 18 temples. The publication of books accounted for the majority of 44 editions (72%) in the 16-17th century, the same phenomenon as other regions like Gyeongsang-do. But there were some growing differences in the 19th century, as opposed to the continued decline in other regions. Buddhist temples in northern Gangwon-do were the center of publication, with 46 editions (75%) being published at Geumgang-san and Seorak-san, including Pyohun-sa (16 editions), YuJeom-sa (10 editions), and Shinheung-sa (13 editions). By subject, 15 editions of buddhist textbook such as *Gyechosimhakinmun*, 15 editions of buddhist rituals such as *Suryukmoocha pyungdeungjaeui chwalyo*, and scripture for practicing good deeds such as *Lotus Sutra* were high. 112 engraver were listed in 41 kinds of books and most of them were active in Gangwon-do. There remains 13 types of wooden plate in Shinheung-sa and 2 types of wooden plate from temples in Bogaesa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c material to examine the history, character, and status of Buddhist temples.

Key words: Geumgang-san, YuJeom-sa, Pyohun-sa, Shinheung-sa, Buddhist scriptures

* 계명대학교 고문헌 사서(lilimo95@daum.net)

투고일: 2020년 11월 20일 최초심사일: 2020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20일
서지학연구, 제84집, 229-256,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4.229>

1. 머리말

인쇄술은 서적의 대량 보급을 가능하게 한 인류의 위대한 발명이다. 인쇄술 발명으로 인류가 축적한 지식 문화가 서적을 통하여 더욱 빠르고 넓게 보급되었고, 지식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체 결속과 문명 발달을 가능하게 하였다. 인쇄술의 발명과 확산을 가능하게 한 중심에는 ‘종교’가 있었으며, 현재 전하는 最古의 목판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금속활자본 『직지』가 종교서인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경전 보급을 통해서 종교는 인쇄술과 서적의 보급과 대중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는 종교인 불교는 삼국시대 이후 왕실과 지배층은 물론,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삶에 가장 영향을 준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불교를 근간으로 건국된 고려시대에는 국력이 총동원된다는 대장경 관각이 두 차례 이루어질 만큼 佛書 간행은 전성기를 이루며 인쇄술의 보급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조선 건국 후에도 왕실 발원과 사찰에서의 불서 간행은 계속되었고, 성리학 이념이 사회 운영의 원리로 정착되어 가던 16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왕실 차원의 서적 간행은 급감하였지만, 불경 간행을 통한 강원 교재 보급, 수륙재 등 의식에 필요한 서적 보급, 서적 간행 시주를 통한 포교 활동, 공덕을 쌓고 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한 목적으로 각 지역 사찰을 중심으로 서적 간행은 계속되었다.

목판 판각을 위한 기술자 등 인력과 신도들의 시주를 통한 물자가 뒷받침되어 자체 서적 간행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찰은 서적 간행 불사를 통하여 사찰과 신도의 결합과 함께 불서 간행의 발행자·출판처 역할은 물론, 관원이나 지역 유력 가문의 요청에 의한 서적의 판각과 책판의 보관처 역할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 서적 간행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였다. 지역 사찰의 서적 간행은 해당 지역의 출판 인쇄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역 사찰의 간행 불서에 대해서는 전라도(97개 사찰 431종), 경인지역(39개 사찰 373종), 경상도(114개 사찰 448종), 황해도(24개 사찰 85종), 북한산, 지리산, 양주 등 지역별 연구¹⁾를 비롯하여 간행이 활발하였던 광흥사·신흥사·송광사·보현사·운흥사 등 경상·전라를 중심으로 한 16개 사찰의 서적 간행 연구가 있었고, 이를 통하여 寺刹版 목록 제시와 함께 해당 사찰판의 특징과 성격 등이 밝혀졌다.

강원도 지역 사찰판에 대해서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1975), 문화재관리국(1987), 문화재청(2019)의 사찰 경관 조사를 통하여 책판이 보관되고 있는 신흥사 경관 25종의 목록이 제시되었고,²⁾

- 1) 이옥금, “朝鮮朝 湖南 寺刹版에 關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祥明女子大學校 大學院, 1988). ; 이봉열, “京仁地域 佛書版本의 特性 및 意義,” (석사학위논문, 祥明女子大學校 大學院, 1995). ; 남권희, “경상도 지역에서 간행된 불교 서적에 관한 연구,” 『韓國書誌學論集』 (서울: 민창문화사, 1999), 351-456. ; 송일기, “황해도 사찰간행 불서의 서지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권 1호(2016), 395-416.
- 2)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佛敎經板 調査研究報告: 京畿·江原道篇,” 『불교학보』 12(1975), 201-231. ; 박상국, 『전국사찰소장목판집』 (한국: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7). ;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 문화재: 2019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 18(강원도, 전라남도3)』 (대전: 문화재청, 2019). 『전국사찰소장목판집』의 부록에 ‘有刊記

이에 대하여 경관의 조성 과정과 배경, 참여 인물, 경관의 성격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³⁾ 이외에 사찰판 각수 연구의 부분으로 각수명이 조사된 강원도 11개 사찰 19종의 불서가 제시되었고,⁴⁾ 강원도 서적 간행 연구의 일부분으로 언급되었으며,⁵⁾ 개별 불서의 판본 연구나 불서 간행 연구에서 판본의 하나로 언급되는 정도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강원도 지역 사찰판에 대해서는 설악산 신흥사 중심의 현존 경관에 한정된 연구에 머물렀고, 지역 서적 간행의 일부로 간략히 언급되었을 뿐 강원도 전체 사찰을 대상으로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한 종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강원도 지역 사찰판을 조사하여 간행 현황을 살펴보고, 금강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강원도 지역 사찰판의 개관 현황에 대하여 지역별, 시기별, 주제별 분석을 통하여 강원도 사찰판의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사찰판 서적 연구 분야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강원도 지역을 보완함으로써 지역 사찰판의 비교 연구에 보탬이 될 것이며, 남북 문화 교류의 상징인 금강산 지역의 사찰 간행 불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교류 협력에도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한다.

2. 강원도 지역 사찰판의 간행

2.1 서적 간행 현황

강원도 지역의 사찰은 16세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113개, 18세기의 『여지도서』에는 158개, 20세기의 『조선불교통사』에는 114개가 수록되어 있어 16세기 이후 사찰의 수가 증가하였다가 19세기 말부터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며, 1911년 조선총독부의 ‘사찰령’에 따라 전국에 30개의 본사를 둘 때, 강원도는 乾鳳寺·楡岾寺(금강산), 月精寺(오대산) 등 3개 사찰이 본사로 지정되어 도내 132개 사찰을 관할하였다.⁶⁾ 강원도는 남북이 분단되어 이북 지역을 제외하면, 강원 북부는 神興寺(설악산), 강원 남부는 月精寺(오대산)가 각각 조계종의 제3·4교구 본사이며, 도내에는 조계종 44개 등 48개의 전통 사찰이 등록되어 있다.

강원도 지역 사찰의 서적 간행은 금강산과 설악산을 중심으로 18개의 사찰에서 모두 61종의 서적

佛書木板本 目錄'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강원도 사찰판은 35종이 있으나 『淸珠集(1870普光寺)』, 『佛說阿彌陀經(1881普光寺)』, 『妙法蓮華經(1762楡岾寺)』 등 3종은 확인되지 않거나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면 32종이 확인된다.

- 3) 유근자, “신흥사 경관의 조성 배경과 사상 - 大顛和尚注心經, 諸眞言集, 佛說廣本大歲經,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 大圓集 등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45(2015), 107-141.; 김현정, “1658-1661년(順治年間) 신흥사 수록제 의식집의 간행,” 『강좌미술사』 45(2015), 143-179.
- 4) 김상호, “朝鮮朝 寺刹板 刻手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 5) 최경훈, “조선시대 강원도 지역의 목판 인쇄 문화 연구,” 『강원사학』 34(2020), 91-125.
- 6) 이병희, “朝鮮時期 寺刹의 數的 推移,” 『역사교육』 61(1997), 49-54.

간행이 조사되었다. 전체 현황은 <표 1>과 같으며,⁷⁾ 금강산과 설악산 지역에서 75%(금강산 54%, 설악산 21%)의 서적 간행이 이루어져 강원도 사찰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1> 강원도 소재 사찰의 서적 간행 현황

산(종수)	행정구역	사찰명	고려·조선전기		조선후기			소계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金剛山 (33)	杆城	乾鳳寺			1	1	3	5
		神溪寺					1	1
	高城	楡岾寺		8			2	10
		長安寺		1				1
		表訓寺		9	7			16
淮陽	神興寺			11	1	1	13	
雪岳山(13)	襄陽	神興寺			11	1	1	13
雉岳山(1)	原州	上院庵	1					1
都也尼峙(1)		桐華寺		1				1
미상(1)		彌勒寺	1					1
寶蓋山(4)	鐵原	石臺庵					2	2
		聖住庵					1	1
		深原寺		1				1
高達山(1)	伊川	미상				1		1
兜率山(1)	楊口	上菴		1				1
淸平山(2)	春川	文殊寺		2				2
五臺山(2)	江陵	月精寺		2				2
頭陀山(1)	三陟	三和寺	1					1
太白山(1)	旌善	淨巖寺					1	1
소계			3	25	19	3	11	61

2.2 金剛山 지역

금강산은 강원도의 북쪽인 간성, 고성, 회양에 걸쳐 있으며, 지금은 대부분 북한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금강산은 80권본(주본) 『화엄경』 제45권의 ‘諸菩薩住處品’에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 있으니 예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범기보살이 그의 권속 1,200 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한다.’⁸⁾고 하여 범기보살이 설법하고 있는 신성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범기보살의 상주처인 금강산은 普陀洛伽山[洛山寺]의 觀音, 五臺山의 文殊, 支提山[天冠山]의 天冠, 寶蓋山의 地藏菩薩과 함께 우리나라 菩薩住處 가운데 하나이다.⁹⁾ 4대 사찰인 長安寺·表訓寺·神溪寺·楡岾寺를 비롯하여

7) 서적의 간행본 조사는 현존본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보완하였다. 해당 사찰에서 서적을 간행하여 책판을 옮긴 것과 다른 지역에서 간행되어 책판을 옮겨온 경우를 포함하였다. 불경에서 통상적으로 함께 간행하여 1책으로 묶은 경우는 본문에서 그 내용을 말하고, 종수는 1종으로 산정하였다.

8) 80권본(周本) 『대방광불화엄경』 45권 ‘大方廣佛華嚴經諸菩薩住處品第三十二’, “海中有處名金剛山 從昔已來 諸菩薩衆於中止住 現有菩薩 名曰法起 與其眷屬 諸菩薩衆千二百人俱 常在其中而演說法”

끝짜기마다 크고 작은 사찰이 존재하였다. 그 가운데 표훈사, 유점사, 건봉사, 신계사, 장안사 등 5개 사찰에서 33종(54%)의 불서 개관이 조사되었으며, 건봉사를 제외하면 현재는 모두 북한 지역에 있다.

<표 2> 금강산 지역 사찰 간행 불서 목록 (33종)

고을	사찰	서명	연도	간기	비고
杆城	乾鳳寺	佛說大報父母恩重經	1692	板留于乾鳳寺… 跋：金剛山人(1692)	송일기(2010), 간송문고(목록)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疎鈔	1759	京城寫字官校書館書而刻之 移藏於乾鳳寺即乾隆戊寅(1758)始己卯(1759)終	계명대, 장관처
		佛說無量壽經	1861	咸豐辛酉五月日江原道杆城乾鳳寺萬日會板藏 / 咸豐十一年辛酉午月日江原道杆城乾鳳寺重刊藏	국립중앙도서관 / 계명대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1861	咸豐十一年辛酉臘月金剛山乾鳳寺藏板	계명대
高城	神溪寺	佛說大目連經	1862	同治元年壬戌春金剛山乾鳳寺萬日會藏板	계명대
		金剛般若波羅蜜經	1867	同治六年丁卯夏金剛山神溪寺普雲庵藏板	동국대
	楡岾寺	蒙山和尚法語略錄(언해)	1521	正德十六年十一月日 金剛山楡岾寺開板	동국대, 사법어 無
		請文	1522	嘉靖六年二月日金剛山楡岾寺開板	국립중앙도서관
		禪源諸詮集都序	1553	靖三十二年癸未夏金剛山楡岾寺開刊	봉좌문고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1554	嘉靖三十三年甲寅 金剛山楡岾寺開刊	김동연(2015, 화봉)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1583	萬曆十一年癸未仲春天吼山普賢庵開刊移鑄于楡岾寺	김동연(2015, 개인)
		禪源諸詮集都序	1583	萬曆十一年癸未十二月日天吼山雲峯開刊移鑄于楡岾寺	산기문고
		禪家龜鑑	1583	萬曆十一年癸未 金剛山楡岾寺開刊	고려대
		禪家龜鑑	1590	萬曆十八年庚寅夏 金剛山楡岾寺開刊	국립중앙도서관
淮陽	長安寺	妙法蓮華經	1575	萬曆三年乙亥三月日 金剛山長安寺	정왕근(2012, 개인), 성달생계
	表訓寺	緇門警訓	1532	嘉靖十一年壬辰孟秋日 金剛山表訓寺開板	사찰소장목판집
		高峯和尚禪要	1537	嘉靖十六年丁酉五月日 表訓寺開刊	국립중앙도서관
		緇門警訓	1539	嘉靖十八年己亥孟秋日 金剛山表訓寺開板	영남대
		識初心學人文[初發心自警文]	1540	嘉靖十九年庚子六月日金剛山表訓寺開板	원각사, 附 蒙山和尚法語略錄·四法語
		禪林寶訓	1542	嘉靖二十一年壬寅 金剛山表訓寺開板	계명대
		妙法蓮華經	1545	嘉靖二十四年乙巳七月日留板于金剛山表訓寺	정왕근(2012, 기림사), 성달생계
		禪門拈頌集	1549	嘉靖二十八年己酉冬月 金剛山□□寺開刊	동국대
		佛說大報父母恩重經(한문)	1557	嘉靖三十六年二月日 金剛山表訓寺開板	연세대
		識初心學人文[初發心自警文]	1572	隆慶六年十二月 金剛山表訓寺開板	송일기(2019), 附 蒙山和尚法語略錄·四法語
高峯和尚禪要		1662	康熙元年壬寅孟冬江原道淮陽都護府金剛山表訓寺開板	국립중앙도서관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1662	康熙元年壬寅秋 金剛山表訓寺開板上	계명대	
禪源諸詮集都序		1662	康熙元年歲次壬寅秋 江原道金剛山表訓寺刊板	최동원(2008, 화봉)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1662	康熙元年壬寅十月日金剛山表訓寺刊上	원각사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662	康熙元年歲次壬寅春江原道淮陽東金剛山表訓開板	대성사	
雲水壇誦詞		1662	康熙元年壬寅秋 金剛山表訓寺開板	국립중앙도서관	
妙法蓮華經		1663	康熙二年癸卯夏 金剛山表訓寺刊上 등 (매권말 간기)	동국대, 갑인자계	

9) 강호선, “고려시대 강원지역 불교의 전개,” 『강원사학』 32(2019), 39-40.

2.2.1 乾鳳寺

간성군 서쪽의 건봉사는 금강산 남쪽 자락에 있다. 520년 고구려의 阿道和尚 창건한 圓覺寺에 뿌리를 두고 있고, 758년 發微和尚이 원각사를 중건하고 염불만일회를 개설하여 염불만일회의 효시가 되었다. 1464년 세조가 자신의 원찰로 삼고 御室閣을 지어 역대 국왕의 위패를 봉안하는 등 왕실의 願堂으로 조선 후기까지 왕실의 지원을 받았다. 1878년 화재로 전소되었다가 이듬해 중건되었으며, 1911년 30본산의 하나가 되었으나 한국전쟁 때 폐허가 된 후 지금은 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의 말사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건봉사 간행 서적은 『父母恩重經(諺解)』(1692), 『佛說無量壽經』·『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1861), 『佛說大目連經』(1862) 등 4종이다.¹⁰⁾ 모두 간행 시기가 조선 후기이며, 그 가운데 19세기 중반에 3종이 집중되어 있다. 『父母恩重經』은 무겁고 깊은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은을 가르친 것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져 전래된 僞經의 하나이며, 건봉사판은 『父母恩重經』 판본을 종합하여 85종(한문 45종, 언해 40종, 한글 4종)의 간본을 밝힌 연구에서 언급되었고, 간송문고에서 전존본이 확인되는 희귀본이다.¹¹⁾ 나머지 3종은 1861년부터 1862년 사이에 건봉사 만일회 주관으로 懶隱이 주도하여 간행된 것이다.

『佛說無量壽經』은 懶隱이 1857년 가을에 部林禪丈을 奉恩寺에서 만나 해인사판 ‘無量壽經’ 1권을 받아 奉讀해 오던 가운데, 1860년 봄에 乾鳳寺 蓮社에 전념하고 있던 중에 三角山의 翫性 普曉大師가 방문하자 함께 간행하여 유포할 뜻을 모아 다음 해 여름에 간행을 마무리한 것이다. 그런데 乾鳳寺版 전존본을 보면 ‘咸豐辛酉五月日江原道杆城乾鳳寺萬日會板藏’(A판)과 ‘咸豐十一年辛酉午月日江原道杆城乾鳳寺重刊藏’(B판)이라는 다른 간기를 가진 판본이 확인된다. 두 판본을 비교해 보면, 서문과 본문, 상권 말미의 시주질은 동일하지만, 하권 권말제 이하는 저본이 되었던 재조대장경의 간기 유무, 普曉의 발원문과 국왕과 왕실의 壽福 기원문 유무, 施主秩·刻工秩 등 명단 구성과 출입에서 차이를 보인다.¹²⁾

10) 이외에 1758년 寫字官이 글씨를 쓰고 교서관에서 판각하여 乾鳳寺에 移藏한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疏鈔』가 있다. 이 책은 계명대본 6권말에 ‘此板於廣州楊子山天真寺得而鍊之 京城寫字官校書館書而刻之 移藏於乾鳳寺 卽乾隆戊寅(1758)始己卯(1759)終’이라는 간기를 통해 확인되며, 18세기 사자관이 쓴 서적과 동일한 해정한 필체이다. 계명대본은 낙질본 4책(卷3-6, 9-12)이며, 3권과 5권말에 개인과 海南 大菴寺 등 사찰의 시주 기록이 있고, 6권과 10권 말에는 각각 ‘折衝將軍忠武衛上護軍洪聖謨書’와 ‘禦侮將軍行忠武衛副司果閱植書’라는 해당 권차를 쓴 書寫者 기록이 있다.

11) 송일기, 박민희, “새로 발견된 湖南板〈父母恩重經諺解〉 4종의 書誌의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권 2호(2010), 209-228. ; 한국민족미술연구소, 『간송문고 한적목록』 (서울: 韓國民族美術研究所, 1967), 103.

12) 시주질과 간행제원·간기면은 모두 4장이지만, B판은 장차가 43~46장, A판은 장차가 43장·46~48장으로 다르다. 이 가운데 제43장은 동일판이지만 관심제를 제거하고 일부 인원을 바꾼 차이가 있고, 이하 3장은 완전히 다르다. A판은 간행의 계기가 되었던 普曉가 발원문과 축원문의 작성자, 緣化秩의 化主로 등장하지만, B판에는 A판과 동일한 제43장 앞면의 시주질에만 이름이 등장한다. 각수는 A판에는 비구 性能과 李容圖 2인이지만, B판에는 추가로 李聖能이 더 있다. 이 판본은 본문은 동일한데 시주질과 권말 사항에 차이를 보이는 특징을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규장각직각 鄭健朝가 懶隱을 만나 국왕, 부모 등 네 가지 報恩에 대한 문답 중에 報恩의 방법으로 경전을 간행·인포해서 讀誦하는 佛事를 행하는 것에 함께 뜻을 모았고, ‘원각경’을 대상 경전으로 정하고 懶隱에게 간행을 청하여 懶隱이 주석은 제외한 원문만 적어 1861년 12월에 간행한 것이다. 『佛說大目連經』은 석가모니의 제자인 目捷連이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는 孝에 관한 경전으로 報恩의 방법으로 선정된 『圓覺經』 간행 후에 懶隱이 등재본의 글씨를 써서 1862년 봄에 간행한 것이다. 19세기 중반 건봉사 간행 3종은 모두 1851년 건봉사의 念佛萬日會를 열었던 碧梧 有聰이 都監이었고, 2종의 간기에 ‘萬日會’라는 글자가 있어 萬日會가 간행의 중심에 있었다.

2.2.2 楡岾寺

고성군 서쪽의 유점사는 금강산의 동쪽 외금강의 효운동 계곡에 있다. 인도에서 왔다는 53불 관련 연기 설화가 있는 사찰로 신라 초기에 창건되었다고 전하며, 1911년 30본산의 하나로 금강산 지역의 중심 사찰이었으나 한국전쟁 때 전소되어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유점사 간행 서적은 10종으로, 1521년(중종 16)의 『蒙山和尚法語略錄』부터 1590년(선조 23)의 『禪家龜鑑』까지 16세기 간행이 8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이후는 19세기 간행된 『大藏一覽經造像品』·『藥師琉璃光七佛本願功德經』이 있다.

『蒙山和尚法語略錄(언해)』은 원나라 승려 몽산의 어록을 선별·편집하고 신미가 譯解하여 1467년 간경도감에서 초판된 이후 지방 사찰판 38종의 현존본이 확인되며,¹³⁾ 유점사판은 1517년의 고운사판에 이어 1521년 11월에 사찰에서는 두 번째 간행된 것이다. 권말제에 이어 간기와 시주질 등 간행 관련 사항이 있는데, 주상·왕비·세자의 수복 축원에 이어 하단에 ‘淑媛李氏靈駕’가 있어 숙원이 씨¹⁴⁾의 영혼을 천도하기 위하여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권말에 기록된 大施主는 李哲謙 金丕山, 鄭來孫, 法能이고,¹⁵⁾ 刻手는 罔祖, 覺連이다. 이듬해인 1522년 2월에 간행된 『請文』에도 대시주 李哲謙, 金丕山과 각수 罔祖, 覺連이 참여하였다. 불가의 공양 법식을 모은 ‘諸般文’의 異書名이기도 한 『請文』 또한 上卷 말에 간기와 주상·왕비·자순왕대비·세자의 수복 축원에 이어 ‘貴人洪氏, 錦原君, 愼氏, 淑媛金氏’를 두 글자 내려 적고 있어 중종의 후궁인 희빈 홍씨가 아들 錦原君 등의 壽福을 기원하며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書寫者는 上卷은 前長 安玉廉이 下卷은 極詞으로 표기되어 있다.

보이며, 어떤 연유인지 알 수는 없으나 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3) 김은진, 송일기, “몽산 어록 조선본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권 1호(2019), 68-69.

14) 중종의 후궁으로 1520년 효정옹주(1520-1544)를 낳고 세상을 떠났음.

15) 이들 5인의 이름은 이보다 앞서 같은 해 4월에 楊口의 兜率山 上菴에서 간행된 『蒙山和尚六道普說』의 권말에도 동일하게 시주와 각수로 나와 있으나 왕실 수복 발원은 없다.

한편, 1553년(명종 8)에 간행된 『禪源諸詮集都序』의 권말에는 주상·왕비·聖烈仁明大王大妃(文定王后)·恭懿王大妃(仁聖王后)·원자 등 왕실의 수복 기원에 이어 간행 참여자로 禪宗判事 普雨와 敎宗判事 義祥 등 불교계 최고 지도자가 관각되어 있어 중앙 정부와 왕실의 지원을 받아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듬해인 1554년 간행된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의 권말에도 주상·왕비·원자의 수복 축원과 시주자 명단이 있으며, 『禪源諸詮集都序』의 시주자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이 두 책은 30년 후인 1583년에 ‘기존 판의 글씨가 맞닿아 있고 조밀하여 나이 든 사람이 읽기 힘들었기 때문에 普賢庵에서 印徽가 繕寫하여 중간하였으며, 경판은 유점사로 옮겨 보관하였다.¹⁶⁾

16세기 승과가 부활하면서 불서 수요의 증가에 따라 강원 교재로 활발히 보급되던 四集科 가운데 2종이 각각 두 차례 유점사에서 간행되면서 1537년 표훈사의 『高峯和尚禪要』, 1578년 월정사의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와 함께 유점사는 16세기 강원도 지역 사찰의 교재 보급처 역할을 하였다.

『禪家龜鑑』은 서산대사 休靜이 선종의 학습자에게 귀감이 되는 요긴한 내용을 뽑아 만든 책으로 유점사에서는 1583년과 1590년에 각각 간행되었으며, 모두 한문본이다. 한문본 『禪家龜鑑』은 『禪家龜鑑諺解(1569)』를 번역·간행한 바 있는 義天이 교정하고, 普願이 글씨를 써서 惟政 등 문인들에 의해 1579년 신흥사(지리산)에서 처음 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⁷⁾ 楡岾寺版은 이 초간본 이후 처음 간행된 것으로 초간본의 登梓本 글씨를 썼던 白雲 普願이 발문을 붙여 간행한 것이다. 普願은 초간본의 惟政 발문에서 밝힌 ‘서적을 간행 유통시켜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는 취지와 같이 스승의 저술을 널리 간행 유통시켜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뜻에서 1583년에 발문을 붙이고, 學士 李秀倫이 글씨를 쓰고 市隱 金守翥가 관각하여 간행하였다.¹⁸⁾ 『禪家龜鑑』은 이후 1590년 유점사에서 다시 번각되었는데, 여기에는 普願의 발문이 양각으로 관각되면서 작성연도와 작성자는 생략되어 있으며, 시주자·연판·각수 등 간행 참여자 명단에 이어 간기가 있다.

『大藏一覽經造像品』은 불상·보살상을 만드는 절차와 방법, 그 과정에서의 의식과 진언 등을 모은 책이다. 造像에 대해서는 陳實(宋)의 『대장일람집』 권4에 수록된 「造像品」과 「諸佛菩薩腹藏壇儀式」·「佛說佛母般若波羅蜜多大明觀想儀」·「妙吉祥大教王經」·「三悉地壇釋」 등으로 구성된 『諸佛菩薩腹藏壇』이 승척 편집되어 임란 이전부터 조선 후기까지 간행·유통되었다. 楡岾寺版은 聳虛 碩旻이 기존에 유통되던 몇 종의 판본이 모두 오래되어 닳고 잘못된 부분도 있어 改刊하고자 여러 판본을 모아 華嶽 知濯(1750-1839)에게 考證을 부탁하고 문인 影海에게 글씨를 쓰게 하여 간행한 것이며, 간행 후에 200여 부를 인쇄하여 널리 배포하고 책판은 금강산에 두어 전하게 하였다.¹⁹⁾

16) 최동원, “朝鮮時代に 刊行된 『禪源諸詮集都序』의 書誌의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8), 136.

17) 송일기, “三家龜鑑의 書誌學的 研究 - 禪家龜鑑의 成立과 關聯하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1), 56-57.

18) 고려대(육당문고), 원각사본을 통하여 확인되는 간본이며, 권말에 음각에 관각된 1장의 발문 이외에 간기나 시주절 등 권말 사항은 보이지 않는다. 채상식의 연구에서는 ‘萬曆十一年癸未 金剛山楡岾寺開刊’이란 간기와 함께 소개되었다(채상식, “1608년 松廣寺 重刊 『勸修定慧結社文』·『誠初心學人文』 연구,” 『서지학연구』 47(2010), 295-320).

19) 影海 呂訓, 『大藏一覽經造像品』, 『大藏一覽經造像品跋』.

발문에 이어 주상·중전·세자의 만수무강과 孝懿王后 金氏·綏嬪朴氏·和嬪尹氏의 극락왕생을 축원하고 있으며, 永明都尉(洪顯周)·淑善翁主 내외와 여러 상궁도 나열되어 있다. 이어 11면에 걸쳐 龍珠寺 등 사찰 포함 다수의 시주자 명단이 있으며, 마지막 1면에는 緣化, 化主, 書寫, 刻工 등 간행 참여자 명단과 간기가 있다.

『藥師瑠璃光七佛本願功德經』은 義淨(唐)이 한역한 약사여래 관련 경전으로 오로지 七星을 공양할 때에 읽기 위한 목적으로 懶隱이 대장경을 저본으로 서사하고 서·발문을 지어 1869년에 간행 배포한 것이다. 권말에 각수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化主 尙曄과 董役 桐庵永善은 1867년 유점사의 말사인 神溪寺 간행 『(六祖)金剛般若波羅密經』에도 동일하게 등장한다.

2.2.3 神溪寺

神溪寺는 금강산 4대 사찰의 하나로 1911년 30본산이 정해질 때 유점사에 속해 있었던 사찰이다. 519년 신라의 普雲祖師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며, 한국전쟁 때 전소되었다가 남북교류 협력이 진행되어 2000년대에 복원되었으며, 북한 국보유적 제95호로 지정되어 있다.²⁰⁾ 신계사에서는 1867년 『金剛般若波羅密經』 1종이 神溪寺의 普雲庵에서 간행되었다. 鳩摩羅什(唐)이 한역한 경전의 원문에 六祖 惠能의 구결만 붙이고 大雲性起의 校證, 桐庵永善의 鑑別董役, 비구니 尙曄의 化主로 懶隱이 글씨를 쓰고 발문을 붙여 간행한 것이다. 懶隱은 건봉사에서 1861-2년에 『佛說無量壽經』 등 3종, 유점사에서 1869년 『藥師瑠璃光七佛本願功德經』의 서적 간행을 주관하는 등 19세기 금강산 지역 사찰의 서적 간행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尙曄은 普雲社를 조직하고 十王甲會를 모으는 활동을 하였으며, 이 책의 간행과 楡岾寺의 『藥師瑠璃光七佛本願功德經』의 간행에도 化主로 참여하였다.

2.2.4 表訓寺

淮陽郡 남쪽의 表訓寺는 금강산의 서쪽 기슭인 내금강의 萬瀑洞에 있다. 신라의 승려 능인·신림·표훈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며, 1911년 30본산이 정해질 때 楡岾寺의 말사였으며, 북한의 국보 문화유적 제97호로 지정되어 있다.

표훈사 간행 서적은 모두 16종으로, 1532년(중종 27)의 『緇門警訓』부터 1572년(선조 5)의 『蒙山和尚法語略錄』까지 16세기 중엽 간행이 9종이며, 나머지 7종은 『禪源諸詮集都序』 등 사집과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등 불교 의식집 관련 서적으로 1662년부터 1663년에 걸쳐 집중 간행되었다.

조선 전기 간행 서적은 사미과 교재인 『緇門警訓』·『誠初心學人文』·『禪林寶訓』, 사집과인 『高峯和尚禪要』, 대교과로 禪科의 시험과목이었던 『緇門警訓』을 포함하여 『蒙山和尚法語略錄』과 『四法語』 등 강원 교육과 강학 관련 교재 위주이다. 그 외의 『妙法蓮華經』과 『佛說大報父母恩重經』

20) 박대남, “[북한의 문화유산] 금강산의 명사찰, 신계사,” 『북한』 541호(2017), 128-132.

은 현세의 수복과 사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다수 개관된 대표적인 공덕 경전이다.

『緇門警訓』은 智賢(元)이 승려의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1313년에 역대 고승의 경계와 교훈의 글을 엮어 간행된 이후 1470년 如聃(明)이 속집을 증보한 것이 조선에 전래되어 주로 16-17세기에 간행되었으며, 표훈사에서는 1532년과 1539년에 각각 간행되었다.²¹⁾ 1539년 간본의 권말에는 간기, 주상·중전·세자의 수복 축원, 발원자 명단과 함께 각수·연판 등의 정보도 수록되어 있다. 불교 입문서에 해당하는 지눌(고려)의 『誠初心學人文』은 원효(신라)의 『發心修行章』, 아운(고려)의 『自警序』가 합본되어 ‘初發心自警文’으로 통칭되며, 비슷한 성격의 『蒙山和尚法語略錄』·『四法語』까지 합본되어 각각 1540년과 1572년에 간행되었다. 1540년 간본을 보면 간기를 제외한 본문은 모두 31장이며, ‘初發心自警文’은 16장으로 분량이 적다. 5종 합본으로 조선시대 28종의 지방 사찰관이 확인되며,²²⁾ 강원도는 表訓寺版 2종이 유일하다. 『禪林寶訓』은 宗果(송)·士珪(송)가 고승들의 嘉言善行을 모아 선가의 귀감으로 삼고자 편찬한 책이다. 1378년 충주 청룡사판을 시작으로 순천 대광사(1525), 금강산 표훈사(1542), 황주 李順才家(1555) 등 4종의 판본이 확인된다.²³⁾

『高峰和尚禪要』는 권말에 주상·중전·세자의 수복 축원과 간기에 이어 숙원 나씨 등 발원자 명단이 있으나 각수명은 보이지 않는다. 『禪門拈頌集』은 진각국사 혜심이 수선사에서 편찬한 선종의 공안서로 1549년 겨울에 금강산[표훈사]에서 간행되었다.²⁴⁾ 권말에 주상·왕비·聖烈仁明大王大妃(文定王后)·王大妃(仁聖王后) 등 왕실의 수복 기원 축문에 이어 간행 참여자로 奉恩寺 주지 普雨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저본은 1243년 남해 분사도감에서 단속사 주지 만종의 후원을 받아 鄭晏이 간행한 것이며, 비슷한 시기인 1549년에 지리산 신흥사에서, 1566년 평안도 순안 범흥사에서 도 각각 번각이 이루어졌다.

조선 후기는 1662년 봄부터 1663년 여름까지 모두 7종이 간행되었다. 불교 의식집인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雲水壇諷詞』·『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와 강원 사집과인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禪源諸詮集都序』·『高峯和尚禪要』 등 6종은 1662년 봄부터 겨울까지, 그리고 대표적인 공덕서인 『妙法蓮華經』은 1663년 봄부터 여름에 걸쳐 간행되었다. 이 가운데 『妙法蓮華經』은 동국대본(권2-7)이 확인되며, 각 권말에 왕실의 수복 축원에 이어 각각 ‘黃海道秩, 京畿道施主秩, 江原

21) 1532년 表訓寺版은 문화재관리국 『전국사찰소장목판집』의 ‘有刊記 佛書木板本 目錄’에 개인 소장으로 간기와 함께 수록되어 있을 뿐 실제 자료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532년 금강산 표훈사에서 개관하였다는 간기(嘉靖十一年壬辰孟秋日 金剛山表訓寺開板)가 기입되어 있고, 해당 간기를 가진 다른 책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표훈사 간본으로 추가하였다.

22) 송일기, “四法語의 편찬과 유통,” 『서지학연구』 63(2015), 73.

23) 박문열, “조선시대 간행의 『선림보훈』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73(2018), 81.

24) 동국대본 간기를 보면 ‘嘉靖二十八年己酉(1549)冬月金剛山□□寺’라 하여 사찰명이 관각되어 있지 않고 비워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실수로 볼 수도 있지만, 불서의 간행이 여러 사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례를 보거나 『禪門拈頌集』의 분량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이 책 또한 금강산 지역의 여러 사찰이 함께 하였으나 주관 사찰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인출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표훈사로 추정하는 것은 서적을 다수 간행한 금강산의 사찰이 표훈사와 유점사인데, 권말 수록 각수 14인 가운데 惠玉, 惠環은 表訓寺版 『緇門警訓(1539)』, 『妙法蓮華經(1545)』의 각수명으로 표기되어 있고, 유점사판 서적의 각수명으로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道, 咸境道施主秩, 全羅道秩, 黃海道施主秩'로 금강산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도별로 시주자를 표기하였으며, 각 권말의 간기도 봄부터 여름까지 달리 표기하였다.

조선후기 순차적으로 간행된 7종의 서적에는 간행 경위를 설명하는 발문은 없어 구체적인 간행 배경과 과정은 알 수 없으나 권말에 간기와 함께 연화, 시주, 각수 등 간행을 주관하거나 재원을 내거나 목관을 만들고 새긴 기술자의 명단 등 불경의 권말에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간행 사항이 있다. 이들 명단을 보면 다수의 인물이 반복 수록되어 있어 서적 간행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慶雲은 7종 모두에 大願功德主, 大願化主, 大願志士, 大化士, 大功德, 化主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적 간행을 총괄한 사람이며, 義謙²⁵⁾은 4종의 서적에서 證校의 역할을 하였다. 法淸·寶瓊은 각각 공양간 일에 해당하는 別坐·典座로 각각 7종과 6종의 서적에 보인다. 시주자는 『妙法蓮華經』을 제외하면 대체로 적은 인원이며, 金玉南·鄭希性은 6종 모두에 시주자로 수록되어 있다. 鄭希性은 1662년 봄에 간행된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이외에 가을부터 간행된 5종에는 '鄭希性 靈駕'로 표기되어 그의 천도를 위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였다. 각수는 4종의 서적에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연속적으로 판각이 이루어진 만큼 다수 중복을 보인다.

2.2.5 長安寺

長安寺는 6세기 창건 이후 1343년 원나라 기황후가 순제와 태자를 위해 대규모로 중창하였으며, 화재와 중수를 거듭하였다. 1842년 부원군 조만영의 보시로 300여 칸의 대찰로 중수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어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장안사 간행 불서는 1574년의 『妙法蓮華經』이 있다. 이 책은 1545년 표훈사판을 저본으로 번각한 成達生系이며, 권말에는 法淨의 발문과 서사자 慕恩, 각수 信雲 등이 수록되어 있다.²⁶⁾

2.3 雪岳山 神興寺

설악산 사찰 가운데 서적 간행이 확인되는 사찰은 외설악에 있는 신흥사이다. 신흥사는 1644년 靈瑞·蓮玉·惠元 등이 1642년에 소실된 禪定寺의 중창을 발원하는 과정에서 선정사의 옛 터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중수의 차원에서 새롭게 지은 사찰이며, 1647년 대웅전을 짓고, 1661년 海藏殿을 지어 다수의 경판을 보관하였다. 1912년에는 건봉사의 말사였으나 1965년 조계종 제3교구 본사로

25) 義謙(1592-1665) 號 楓潭, 14세에 출가하여 묘향산 성순에게 구족계를 받고 언기의 범맥을 계승한 승려. 천관산의 圓澈에게 사집과를 배운 후에 묘향산의 언기의 문하에서 수도하면서 범맥을 이었으며, 금강산에 머물며 후학을 지도하였다. 1665년 3월 금강산 正陽寺에서 입적하였는데, 제자가 500명이 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6) 정왕근, “朝鮮時代 <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49.

건봉사 등 강원도 북부지역 사찰을 관장하고 있다.

신흥사에서서는 1644년 중수 이후 사찰을 정비하면서 1658년부터 1670년까지 불과 12년의 짧은 시기에 11종의 서적이 간행되었다.

<표 3> 설악산 神興寺 간행 불서 목록 (13종)

	명칭	연도	종수	간기	잔존관
1	諸眞言集	1658	1	順治十五年戊戌六月下澣日江原道襄陽都護府地雪岳山神興寺重刊	44(缺)
2	佛說大報父母恩重經(언해)		1	順治十五年戊戌梧秋下澣日江原道襄陽府雪岳山神興寺開刊	8(缺)
3	金剛頂瑜伽念珠經揭		1	順治十五年戊戌孟秋襄陽府神興寺開刊	1(完)
4	妙法蓮華經	1661	1	順治十八年辛丑四月日江原道襄陽地雪岳山神興寺開刊	29(缺)
5	雲水壇諷詞		1	順治十八年辛丑四月日江原道襄陽地雪岳山神興寺開刊	13(完)
6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	順治十八年辛丑五月日江原道襄陽地雪岳山神興寺開刊	33(完)
7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	順治十八年辛丑六月日江原道襄陽地雪岳山神興寺開刊	22(缺)
8	大顛和尚注心經	1666	1	康熙五年丙午四月日江原道襄陽都護府地雪岳山神興寺開刊	20(完)
9	僧家日用時默言作法		1	康熙五年丙午首夏雪岳山神興寺大德靈瑞板成	4(缺)
10	諸般文	1670	1	康熙九年庚戌五月日原襄道襄陽府雪岳山神興寺開刊	15(缺)
11	佛說廣本大歲經		1	康熙九年庚戌五月日原襄道襄陽府雪岳山神興寺開刊留上印	61(完)
12	神興寺遊山錄	1772	1	乾隆三十七年壬辰春暮龍巖記/江原道金剛山華嚴寺...金重碩由板殿〇時(목판배면)	1(缺)
13	大圓大師文集	1801	1	序: 辛酉[1801]...崔昌迪	14(缺)

1658년의 『諸眞言集』은 불교 의식집과 다라니경에 수록된 다라니와 진언을 발췌한 것으로 『佛頂心陀羅尼經』이 함각되어 있다. 권말에는 山人 靈瑞·信彦, 禪門 信業이 개관하여 널리 유포한다는 경위와 주상 삼전하의 수복 축원을 담은 前江原摠攝兼 낙산사 주지 道源의 발문이 있다. 같은 해 간행된 『佛說大報父母恩重經』에도 ‘山人 靈瑞·信彦이 발원하여 진언집·십법계도·은중경 등을 간행한다’는 발문이 있다. 1661년 간행된 4종은 수록재와 친도재 실행에 필요한 경전으로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의 발문에 ‘優婆塞 信賢이 발원하여 법화경, 은중경, 진언집, 중례, 결수, 운수단 등 약간의 경전을 신흥사에서 새긴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신자인 信賢이 1658년부터 시작된 6종의 서적을 발원하였다는 것이며, 5종의 권말에 幹善, 化主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雲水壇諷詞』는 휴정이 사찰에 전해오던 헌공의식을 정리한 의식집이며, 이전에 유통되던 것이 세월이 지나 귀해지자 登徽가 책을 구해 간행하였다는 발문이 있다. 1658년부터 1661년까지 간행된 서적은 대부분 수록재와 관련된 불교 의식집이며, 이는 양란 이후 민심을 수습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²⁷⁾

27) 김현정(2015), 175-176.

1666년 간행의 『大顛和尚注心經』은 대전 화상의 『般若心經』 주석서이며, 『僧家日用時默言作法』은 사찰에서 승려의 발우 공양을 위한 묵언작법과 식당작법 절차를 수록한 일용 의식집이다. 두 책의 간행은 『大顛和尚注心經』 발문에 ‘山人 靈瑞가 발원하여 註心經과 默言을 중간한다.’고 하였고, 『僧家日用時默言作法』에는 간기에 ‘大德靈瑞板成’이 부기되어 있어 신흥사 중건의 핵심 인물인 靈瑞가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1670년의 『佛說廣本大藏經』은 도교와 민간신앙 관련 현세구복적인 성격의 가지는 15종의 경전이 합쳐져 있다. 『諸般文』은 사찰의 일상 예법을 망라한 책이며, 관심제는 ‘請文’이다.

신흥사 중건 이후 짧은 시기에 간행된 11종의 서적에는 간기와 시주·연화질, 각수 등 간행 참여자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으며, 일부 서적에는 왕실 수복 축원과 간행 배경을 적은 발문도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권말 기록을 통하여 사찰 중건을 주도하였던 靈瑞 스님이 다수의 승려와 함께 사찰 중건 이후 영혼의 천도를 위한 의식과 사찰 일용 의식을 위한 서적을 주로 간행하였고, 신도로는 信賢이 중심 역할을 하였다. 이외에 『神興寺遊山錄』은 간기는 없으나 신흥사의 용암 체초(1713-1779)가 신흥사 주변 암자를 유람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大圓大師文集』은 신흥사 승려 대원 무외(1714-1791)의 문집이다.

2.4 기타 지역

금강산·설악산 이외 지역으로는 原州의 雉嶽山 등 3종, 철원의 寶蓋山 4종, 春川의 淸平山 2종, 楊口의 兜率山 1종, 伊川 高達山 1종, 江陵의 五臺山 2종, 삼척의 두타산 1종, 정선의 태백산 1종 등 15종이 조사되었다.

<표 4> 기타 지역 간행 불서 목록 (15종)

지역	사찰(산명)	서명	연도	간기	비고
原州	彌勒寺	佛說續命經	고려	前副戶長 中尹 李 東壽/四弘願 原州 彌勒寺 開板 廣施	남권희(2000, 개인) 원주역사박물관
	桐華寺 (都也尼峙)	誠初心學人文	1576	-	김상호(1991)
	上院庵 (雉嶽山)	寂滅示衆論	1481	皇明成化歲在辛丑暮春下澣新刊於雉岳上院庵	국립중앙도서관
鐵原	深原寺 (寶蓋山)	妙法蓮華經	1574	萬曆二年甲戌九月日江原道鐵原地寶蓋山深原寺開板	동국대, 성달생계
	聖住庵 (寶蓋山)	維摩詰所說經	1854	上之四年咸豐甲寅仲夏新刊 江原道鐵原寶蓋山 聖住庵藏板	송광사, 봉은사 책판 存
	石臺庵 (寶蓋山)	佛說天地八陽神呪經	1839	道光十九年己亥仲夏重刊 鐵原寶蓋山石臺庵藏板	동국대, 봉은사 책판 存
		達摩大師觀心論	1861	咸豐十一年辛酉夏寶蓋山石臺重刊移鑄于廣州 奉恩寺	계명대, 책판 이송 (석대암 → 봉은사)

지역	사찰(산명)	서명	연도	간기	비고
春川	文殊寺 (淸平山)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542	嘉靖二十一年壬寅 江原道春川淸平山文殊寺開板	사찰소장목록판집 (산기문고)
		茶毘文	1542	嘉靖二十一年壬寅 十二月日 江原道春川淸平山文殊寺開板	사찰소장목록판집
楊口	上菴 (兜率山)	蒙山和尚六道普說	1521	正德十七年辛巳孟春江原道楊口地兜率山上菴開板	백련암
伊川	高達山 (사찰미상)	雪巖集	1712	康熙五十一年壬辰四月日江原道伊川高達山刊同門七卷刊板合寅于香山普賢寺 主幹弟子碧虛圓照	규장각, 駒澤大(日)
江陵	五臺山 (月精寺)	訓蒙要鈔	1576	萬曆四年丙子月日 五臺山月精寺留板	계명대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1578	萬曆六年戊寅月日刊 江原道江陵地五臺山月精寺留板	규장각
三陟	頭陀山 (三和寺)	證道歌	1474	跋: 成化甲午(1474)七月日... 三陟都護府使黃允元	계명대
旌善	太白山 (淨巖寺)	江原道旌善郡太白山淨巖寺事蹟	1874	大清同治十三年甲戌五月黃梅節四佛歸客 景雲以社謹誌	정암사(책판)

原州는 고려시대 彌勒寺 간행의 『佛說續命經』, 조선 전기 치악산 上院庵의 『寂滅示衆論』과 都也尼峙 桐華寺의 『誠初心學人文』²⁸⁾이 있다.²⁹⁾ 『佛說續命經』은 ‘이 경을 쓰고 지니고 다니면 죽음을 멀리하고 갱생을 얻을 수 있다.’는 염원을 담은 경전으로 권말에 ‘前副戶長 中尹 李東壽가 原州의 彌勒寺에서 목판에 새겨 널리 배포한다.’는 기록이 있으나 연도 표기는 없으며, 한 면이 6행 15자이고 모두 6면으로 되어 있는 짧은 분량의 절첩본이다.³⁰⁾ 1481년(성종 12)에 간행된 『寂滅示衆論』은 상원암에서 은거하며 후학을 양성하였던 조선 초기의 승려 智唄이 석가모니가 중생을 제도하게 된 까닭과 참되게 도를 닦아 法性을 통달하는 방법 등 열반의 도를 설법한 것이며, 열반에 이르는 과정을 노래로 표현한 『騎牛牧童歌』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권말제는 ‘寂滅論牧童歌’이고, 권말제면에 證明으로 孝寧大君·德源郡 曙·河城府院君 鄭顯祖·永山府院君 金守溫, 大施主로 金今音同, 校正은 雲衲智應, 書寫는 曠月軒 淸融·中德 成志이며, 각수는 洪宝千·金長孫이다. 각수 洪宝千은 1474년 왕실관 『禮念彌陀道場懺法』의 판각에 참여한 10명의 각수 중 한 명이며,³¹⁾ 책의 간행에 효령대군 등이 참여하고 있어 상원암 또는 저자인 智唄이 왕실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28) 이 책은 김상호(1990)의 연구에서 각수 3인(信玄, 有靈, 義淡)과 함께 소개된 것으로 소장처와 실물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29) 원주에서 조선시대 원주는 강원도 감영이 있던 곳으로 강원도에서 서적 간행이 가장 활발하였던 곳이며, 非佛書의 간행과 장판처로 확인되는 사찰이 있다. 치악산에 소재한 龜龍寺와 鶴原寺가 있는데, 龜龍寺에는 『龍仁李氏族譜(1732)』가 감사 李普赫에 의하여, 申最의 문집인 『春沼子集(1733)』이 정선군수 申致謹에 의하여, 『原州李氏族譜(1745)』가 李彙芳 등 원주 지역 문중에 의하여, 趙裕壽의 문집인 『后溪集(1747)』이 강릉부사로 부임한 繼子 조적명에 의하여, 金柱臣의 문집인 『壽谷集(1760)』이 감사로 부임한 손자 金孝大에 의하여 간행된 서적이 장판되었고, 鶴原寺에는 한백겸의 문집인 『久菴遺稿(1643)』가 감사로 부임한 아들 韓興一에 의하여 간행·장판되었다. 그러나 원주 이외의 지역에서는 비불서의 장판처 역할을 수행한 사찰은 확인되지 않는다.

30) 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10-16.

31) 김상호(1990), 49.

보인다. 이 책은 上院庵版 이외의 판본은 확인되지 않는다.

철원의 남쪽으로 연천과 이어지는 보개산에는 12개 사찰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심원사·석대암·성주암에서 4종의 서적이 간행되었다.

심원사는 647년 靈源 祖師가 興林寺로 창건한 것을 1396년 무학이 중창하면서 개칭된 사찰이다. 임란 이후 250여 칸의 대찰의 규모를 갖추었으나 1907년 정미의병의 항쟁 과정에서 소실되었고, 한국전쟁 때 폐허가 되었다가 중창되었다. 심원사에서는 1574년에 『妙法蓮華經』이 간행되었다. 成達生系로 권말에는 주상·왕비·대비의 수복 축원과 施主를 비롯하여, 化主, 刊板, 鍊板, 引勸 등 간행을 주관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다.

석대암에서는 1839년 『佛說天地八陽神呪經』과 1861년 『達摩大師觀心論』이 간행되었다. 『佛說天地八陽神呪經』은 義淨(唐)이 번역한 불서로 위경의 하나이며, 石臺庵版은 기존에 유통되던 의경의 번역본에 석대암에 머물던 華潭 敬和(1786-1848)³²⁾가 주석을 붙인 것으로 『佛說天地八陽神呪經註』로도 불린다. 권수면에 ‘海東沙門 敬和 焚香 註釋’이라는 저작자 표기가 있으며, 권두에 경화가 1831년 중춘에 쓴 서·발문이 있다. 권말에는 주상·왕비·대왕대비·왕대비 등 왕실의 수복 축원에 이어 證義 華嶽 知灌과 仁坡 宥安, 書寫 高景煜의 이름, 施主 秩, 緣化 秩, 山中 秩, 刊記가 있다. 이 경관은 현재 서울 봉은사에 36권이 온전하게 전한다.³³⁾ 『達摩大師觀心論』은 보리달마가 설한 心論을 제자 慧可와의 문답 방식으로 정리된 것이며, 석대암판은 15장 분량의 책으로 본문 이외에 권말에는 석대암에서 간행되어 廣州 奉恩寺로 옮겼다는 간기만 있다.

성주암 간행의 『維摩詰所說經』은 1854년 雙月堂 性闊의 발원과 華隱 護敬의 교정을 거치고 吳旻秀가 글씨를 써서 간행된 것이다. 『維摩詰所說經』은 鳩摩羅什이 번역한 가장 대표적인 維摩經의 한역 경전이다. 『반야경』의 초 사상을 이어받아 在家者의 입장에서 전개한 대승불교의 대표 경전이며,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의 불법 및 실천수행에 관한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³⁴⁾ 대장경에 편입되어 있고, 오래도록 읽혀왔으나 해석본이 없었다. 당시 華潭 敬和 등이 안타깝게 여겨오던 차에 性闊이 1853년 서울의 信士 劉聖鍾³⁵⁾의 집에서 通潤(明)의 直疏本을 구하였고, 즉시 간행으로 이어졌다. 권두에는 ‘庵那園法會’ 등 6개의 변상도가 있는데, 5면의 변란 외에 ‘畫師 李季伯’이란 畫師의 이름이 있으며, 寶月堂 慧昭의 ‘新刊維摩詰經要解序’ 등의 서문이 있다. 권말에는 주상·왕비·대왕대비·왕대비·대비 등 왕실의 수복 축원에 이어 연화질과 간기, 4면에 걸친 다수의 시주질, 간행 경위를 설명한 華隱의 발문이 있다. 각수와 연판은 각 5명과 2명인데, 일반적인 불경과 달리 각수가 승려가 아닌 점이 특징이다. 이 경관은 현재 서울 봉은사에 132권이 온전하게 전한다.³⁶⁾

32) 休靜-彦機-楓潭-月潭-喚惺-玩月-漢巖-華嶽-華潭으로 이어지는 鞭羊門派 승려.

33)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 문화재: 2019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 20(종합자료집)』, 14.

34)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 문화재: 2019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 15(서울특별시 2)』, 333.

35) 劉聖鍾(1821-1884)은 19세기 후반 경기도 과주 普光寺의 淨願社, 서울 甘露寺, 妙蓮社 등에서 불서의 편찬과 간행을 주도하였고, 862종 5619책의 불서가 수록된 『德新堂書目』이라는 개인 장서목록을 작성할 만큼 많은 불서를 가진 장서가였다(서수정, “해인사 백련암 불서의 전래와 그 특징,” 『서지학연구』 81집(2020), 164).

春川の 북쪽에 있는 淸平山 文殊寺에서는 1542년 간행된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茶毘文』이 알려져 있으며,³⁷⁾ 수록재 또는 다비식에 관한 불교 의식집이다. 楊口의 동쪽에 있는 兜率山 上菴에서 1521년 간행된 『蒙山和尚六道普說』은 몽산(元)이 ‘一切唯心造’의 관점에서 업에 따라 윤회하는 중생의 세계인 六道(지옥·아귀·축생·아수라·인간·천도)와 깨달은 이의 세계인 悟界(성문·연각·보살·불계)를 설법한 책이다. 권말에 간기와 함께 서사자(크玄), 각수(問祖, 覺連, 惠云), 시주, 화주의 이름이 있다.

伊川の 북쪽에 있는 高達山에서는 1712년 秋鵬(1651-1706)의 문집인 『雪巖禪師亂藁』가 간행되었다. 설암은 10세에 원주 法興寺의 宗眼에게 출가하여 묘향산 보현사의 月渚 道安의 의발을 전수받았고, 정광사(낙안)와 대흥사(해남) 등 남방 여러 사찰에서 『화엄경』을 강론하였으며, 묘향산에서 입적하였다. 이 책은 간행 후에 그가 입적한 묘향산에 책판이 옮겨져 『雪巖雜著』와 합쳐졌다.³⁸⁾ 서·발문은 없으며, 권말에는 간기에 이어 助緣, 刻工 등 간행 참여자와 수법 제자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오대산 월정사 간본은 16세기 중반의 『訓蒙要鈔』,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가 있다. 碧松 智嚴이 불교 교리의 요점을 뽑아 엮은 『訓蒙要鈔』는 1576년에 간행된 것으로 9장 분량이며, 본문에 이어 권말에 간기, 刻手 智玄·妙嚴, 書寫者 德默의 이름이 있다. 강원 사집과의 하나인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1578년에 간행되었으며, 본문에 이어 대시주 沈得龍 등 시주질 39명의 명단에 이어 각수 智玄·師俊·景祥·道淳, 연관 寶瑩·雪雲, 淨人 道訓, 化士 極明, 그리고 간기와 발원문이 있다.

三陟의 頭陀山 三和寺에서 1474년에 간행된 『證道歌』는 玄覺(唐)의 증도가로 趙孟頫(元)가 1316년에 筠軒 禪師를 위하여 쓴 것이 조선에 전래되어 三和寺의 志雲 禪師가 간행한 것이며, 권말에는 삼척부사 黃允元의 발문이 있다. 이 책은 불경이기는 하나 조맹부의 글씨를 익히기 위한 법첩의 성격이 있다. 旌善의 太白山에서 1874년 간행된 『江原道旌善郡太白山淨巖寺事蹟』은 翠巖 性愚가 쓴 『江原道旌善郡太白山淨巖寺事蹟』과 수마노보탑의 중수 및 보수 관련 기록을 정리한 『水瑪瑙寶塔重修事蹟(1778)』, 景雲 以社가 쓴 『水瑪瑙寶塔重修誌(1874)』로 전체 8장 분량이며, 결락 없이 4板이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위탁 관리되고 있다.³⁹⁾ 淨巖寺는 신라의 자장 율사가 창건한 사찰로 알려져 있으며, 이 책은 간기는 없으나 淨巖寺의 사찰 사적기와 水瑪瑙寶塔의 중수 기록을 쓴 사람이 해당 사찰의 승려이고, 책판이 사찰에 보관되어 온 것으로 볼 때, 淨巖寺에서 판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6)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 문화재: 2019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 20(종합자료집)』 (대전: 문화재청, 2019). 14.

37) 이 책은 문화재관리국(1987)에서 편찬한 『전국사찰소장목판집』의 ‘有刊記 佛書木板本 目錄’에 수록되어 있는 판본으로 실물 확인을 못하였다. 목록에 따르면,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는 간기와 함께 소장처로 산기문고라는 기록이 있고, 『茶毘文』은 간기만 있다. 간기는 동일한 1542년이나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간기에는 ‘十二月日’이 더 있다.

38) 3권 3책의 『雪巖雜著』는 권2의 말에 ‘庚寅[1710]七月日香山板殿藏板’이란 간기가 있고, 권3의 말에는 문인 法宗(1670-1733)이 갑오년[1714]에 쓴 발문이 있어 1710년에 간행하고 이어 1714년에 권3을 추각한 것으로 보이며, 『雪巖禪師亂藁』 또한 같은 시기에 伊川의 고달산 어느 사찰에서 간행되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39)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 문화재: 2019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 18(강원도, 전라남도3)』 (대전: 문화재청, 2019). 154-155.

3. 강원도 지역 사찰관의 특성

3.1 시기별 특성

강원도 지역 사찰에서는 모두 18개 사찰에서 61종의 불서가 간행·장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을 간행 시기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강원도 간행 불서의 시기별 분포 현황

구분	시대	서명(연도)	종수(%)	
			세부	전체
고려	고려	佛說續命經(고려)	1	1 (1.6%)
15세기	성종	證道歌(1474), 寂滅示衆論(1481)	2	2 (3.3%)
16세기	중종	蒙山和尚法語略錄·蒙山和尚六道普說(1521), 請文(1522), 緇門警訓(1532), 高峯和尚禪要(1537), 緇門警訓(1539), 誠初心學人文(1540), 禪林寶訓·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茶毘文(1542)	10	25 (41%)
	명종	妙法蓮華經(1545), 禪門拈頌集(1549), 禪源諸詮集都序(1553),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1554),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57)	5	
	선조	誠初心學人文(1572), 妙法蓮華經(1574), 妙法蓮華經(1575), 誠初心學人文·訓蒙要鈔(1576),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1578),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禪源諸詮集都序·禪家龜鑑(1583), 禪家龜鑑(1590)	10	
17세기	효종	諸眞言集·金剛頂瑜伽念珠經揭·佛說大報父母恩重經(1658)	3	19 (31.1%)
	현종	妙法蓮華經·雲水壇諷詞·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661),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雲水壇諷詞·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禪源諸詮集都序·高峯和尚禪要(1662), 妙法蓮華經(1663), 大顛和尚注心經·僧家日用時默言作法(1666), 諸般文·佛說廣本大歲經(1670)	15	
	숙종	佛說大報父母恩重經(1692) 雪巖禪師亂藁(1712)	1	
18세기	영조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疎鈔(1759)	1	3 (4.9%)
	정조	神興寺遊山錄(1772)	1	
	순조	大圓大師文集(1801), 大藏一覽經造像品(1824)	2	
19세기	현종	佛說天地八陽神呪經(1839)	1	11 (18%)
	철종	維摩詰所說經(1854), 佛說無量壽經(1861),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達摩大師觀心論(1861), 佛說大目連經(1862)	5	
	고종	(六祖)金剛般若波羅蜜經(1867), 藥師琉璃光七佛本願功德經(1869), 江原道旌善郡太白山淨巖寺事蹟(1874)	3	
합계			61	61 (100%)

강원도 지역은 나말여초에 선종 주도로 사찰이 많이 창건되어 지역적으로 확산되었고, 보살주처 신앙의 중심 지역으로 고려 말 원나라 왕실과 지배층의 후원을 받으며 사찰이 다수 중창되는 모습을 보였다.⁴⁰⁾ 그런 만큼 학습과 포교의 기본이 되는 불서의 간행도 다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주 미륵사에서 간행된 『佛說續命經』 1종만이 확인될 뿐이다.

조선시대 들어서는 1474년 삼척의 두타산 삼화사에서 간행된 玄覺(唐)의 『證道歌』를 시작으로 1874년 정선의 淨巖寺에서 간행된 『江原道旌善郡太白山淨巖寺事蹟』까지 60종의 서적 간행이 확인된다. 전기에는 10개 사찰(桐華寺 1, 文殊寺 2, 三和寺 1, 上菴 1, 上院庵 1, 深原寺 1, 月精寺 2, 楡岾寺 8, 長安寺 1, 表訓寺 9)에서 27종, 후기에는 9개 사찰(乾鳳寺 5, 石臺庵 2, 聖住庵 1, 神溪寺 1, 神興寺 13, 楡岾寺 2, 淨巖寺 1, 表訓寺 7, 高達山 1)에서 33종으로 후기에 더 많은 서적이 간행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조선 전기는 15세기 2종, 16세기 25종, 조선 후기는 17세기 19종, 18세기 3종, 19세기 11종으로 중종·선조대와 현종대에 서적 간행이 집중되어 있으며, 16·17·19세기 간행 서적이 90.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조선시대 사찰 간행 불서가 16-17세기에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은 황해도, 호남, 영남 지역의 불서 간행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⁴¹⁾ 16세기 지방 사찰의 불서 간행 비중이 높은 이유는 15세기까지 국가·왕실이 주도하던 불서 간행이 사립의 정계 진출 확산으로 왕실의 불서 간행이 어렵게 되는 상황에서 16세기부터 지방 사찰이 그 역할을 대신한 것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성리학적 교화론에 따라 승려와 사찰을 방임하여 사찰과 승려가 증가한 불교 정책의 결과였다.⁴²⁾ 또한 16세기 일시적이지만 문정왕후가 실제로 등장하면서 선교 양종이 부활되고, 승과와 도첩제가 실시되는 등 불교 중흥기를 맞이하였으며, 문정왕후 사후에 승과 등의 불교 정책은 혁파되었으나 16세기 불교계의 사찰과 승려의 양적 팽창을 기반으로 사찰의 서적 간행은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었다. 특히 17세기에도 계속되는 전쟁과 소빙기로 인한 자연 재해 등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 방식으로 백성들을 위무하는 차원의 천도재 관련 의식집이 대거 간행되면서 불교 대중화의 모습을 보인 것도 17세기 서적 간행의 증대와 관련을 가진다.⁴³⁾

전국적으로 지방 사찰의 불서 간행은 대체로 16세기에 급증하여 17세기까지 지속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강원도 또한 같은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강원도는 18세기에 3종으로 급감하던 것이 19세기에 다시 11종으로 간행 서적이 증가하였다. 이는 다른 지역이 대체로 17세기를 기점으로 꾸준히 간행 수량이 감소하는 현상과는 차이를 보이는 강원도 지역 불서 간행의 특징이

40) 강호선(2019), 51.

41)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 전체(손성필, 2013)의 경우 전체 908종 가운데 15세기 64종, 16세기 301종, 17세기 319종, 18세기 169종, 19세기 55종으로 16세기에 급증하여 17세기까지 이어지다가 18세기부터는 쇠퇴하는 현상을 보인다. 황해도(송일기, 2016)의 경우 전체 85종 가운데 15세기 7종, 16세기 57종, 17세기 16종, 18세기 4종, 19세기 1종으로 나타나 16세기 간행이 67%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후는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며, 호남지역(이옥근, 1988)의 경우 전체 431종 가운데 15세기 32종, 16세기 111종, 17세기 158종, 18세기 78종, 19세기 19종, 간년 미상 33종으로 나타나 16세기 급증하여 17세기까지 지속되다가 이후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42) 손성필, “16세기 사찰관 불서 간행의 증대와 그 서지사적 의의,” 『서지학연구』 54(2013), 370-371.

43) 남희숙, “16~18세기 불교의식집의 간행과 불교 대중화,” 『한국문화』 34(2004), 143-144.

라 할 수 있다. 19세기 간행 불서를 보면, 9종이 금강산과 보개산에서 간행되었으며, 이들 서적의 간행 배경에는 彦機의 범맥을 이은 知濯, 敬和 등 금강산과 보개산의 승려가 있었다.

19세기 간행 서적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우선, 해당 지역 사찰의 승려가 기존 서적에 주석을 붙여 편집한 불서가 간행된 경우이다. 유점사의 『大藏一覽經造像品』은 聳虛 碩旻이 여러 관분을 모아 편집하고 華嶽 知濯의 考證을 거친 것이고, 석대암의 『佛說天地八陽神呪經』과 『維摩詰所說經』은 기존 유통본인 義淨(唐)의 번역에 知濯의 범맥을 이은 華潭 敬和가 주석을 붙이거나 기존에 유통되지 않던 통운(명)의 주석을 반영한 것이다. 신계사의 『金剛般若波羅密經』은 경전의 원문에 六祖 惠能의 구결만 뽑아서 편집한 것이다.

둘째, 서적 간행을 주도한 인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서적의 권말에 첨부된 간행 참여자 기록과 서·발문을 보면 동일한 지역의 대표적 인물이 반복된다. 대표적인 인물로 설악산(神興寺)의 靈瑞와 信賢, 금강산(表訓寺)의 義謹과 慶雲, 금강산(乾鳳寺·楡岾寺)의 懶隱 保郁이 있다. 靈瑞와 信賢은 1658년부터 1670년까지 12년의 짧은 시기에 신홍사에서 11종의 서적을 간행할 때 발원자와 화주로, 義謹과 慶雲은 표훈사에서 1662년 봄부터 1663년 여름까지 7종의 서적 간행할 때 證校와 화주로 간행을 주도하였다. 懶隱은 건봉사에서 간행된 3종과 유점사·신계사 간행 서적 각 1종 등 5종의 서적을 書寫한 사람이면서 신계사·유점사 간행 서적에 서·발문을 작성하였고, 『(六祖)金剛般若波羅蜜經』의 교정자였다.

셋째, 건봉사를 중심으로 한 만일회의 서적 간행이다. 건봉사는 삼국시대 발징 화상이 만일염불회를 처음 개최했던 곳으로 19세기에만 1801·1851·1881년 등 세 차례 개최되었다.⁴⁴⁾ 건봉사 간행 서적에는 1851년에 건봉사의 念佛萬日會를 열었던 碧梧 有聰이 都監이었고, 2종의 간기에 ‘萬日會藏板’이라는 글자가 있어 萬日會가 간행의 중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불경의 보급 방식이 저본의 번각보다 사찰에서 승려에 의한 자체 登梓本 제작을 통한 간행이 많다는 점이다. 書寫者는 懶隱이 5종, 影海가 1종으로 6종에서 확인되며, 이는 19세기 간행 서적이 기존의 불경 보급 차원보다는 주석·발체 등의 편집 방식이 이루어진 점과도 관련이 있다.

3.2 지역별 특성

강원도에서 불서 간행 사실이 확인되는 사찰은 미상 1개를 포함하여 18개이며, 행정구역으로는 12개 고을에 분포되어 있다. 간성·고성·회양에 걸쳐 있는 금강산은 5개 사찰에서 33종의 불서가 간행되어 54%로 가장 많고, 양양의 설악산은 신홍사에서 13종(21%), 철원의 보개산은 3개 사찰에서 4종, 원주는 치악산 등의 3개 사찰에서 3종, 춘천의 청평산 문수사와 강릉의 오대산 월정사에서 각 2종이며, 그 외 伊川, 양구, 삼척, 정선에서 각 1종이 간행되었다. 불서가 간행된 사찰을 보면,

44) 이종수, “19세기 건봉사 만일회와 불교사적 의의,” 『동국사학』 49(2010), 314.

대체로 北으로는 금강산, 西로는 보개산(철원), 南으로는 치악산(원주)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 분포한다. 대체로 금강산을 출발하여 한양에 이르는 길목에 위치하며, 한양과 접근성이 양호한 태백산맥의 서쪽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간행 지역을 시기별로 보면, 16세기 서적 간행을 주도한 지역은 금강산으로, 표훈사와 유점사에서 각각 9종과 8종, 17세기는 설악산 신계사에서 11종, 금강산 표훈사에서 7종, 19세기는 금강산에서 6종, 보개산에서 3종의 서적이 간행되어 금강산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인 설악산, 보개산 등의 사찰이 중심이었다. 그런데 전기와 후기에 모두 서적 간행이 이루어진 사찰은 금강산의 표훈사와 유점사 뿐이며, 다른 16개의 사찰 가운데 오대산 월정사 등 9개 사찰은 조선 전기에만, 건봉사 등 7개 사찰은 조선 후기에만 간행되는 현상을 보여 대체로 특정 시기에만 간행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3.3 주제별 특성

강원도에서는 모두 41종의 서적이 61회에 걸쳐 간행되었다.⁴⁵⁾ 이들을 주제별로 보면, 宗義類 15종 24회(39.3%), 경진류가 11종 19회(31.1%), 禮懺類의 法·齋儀式이 8종 12회(19.7%)로 다수를 차지한다. 2회 이상 간행 서적은 12종 32회이며, 나머지 29종은 한 차례 간행에 그쳤다. 2회 이상 간행된 불서는 조선 후기보다 전기의 간행 빈도가 높으며, 간행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2회 이상 간행 불서 현황

연번	서명	전기	후기	소계	간행사찰(연도)
1	妙法蓮華經	3	2	5	表訓寺(1545·1663), 深原寺(1574), 長安寺(1575), 神興寺(1661)
2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3	1	4	楡岾寺(1554·1583), 月精寺(1578), 表訓寺(1662)
3	禪源諸詮集都序	2	1	3	楡岾寺(1553·1583), 表訓寺(1662)
4	佛說大報父母恩重經	1	2	3	表訓寺(1557漢文), 神興寺(1658), 乾鳳寺(1692)
5	誠初心學人文	3	0	3	表訓寺(1540·1572), 桐華寺(1576)
6	禪家龜鑑	2	0	2	楡岾寺(1583·1590)
7	高峯和尚禪要	1	1	2	表訓寺(1537·1662)
8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	1	2	文殊寺(1542), 神興寺(1661)
9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0	2	2	神興寺(1661), 表訓寺(1662)
10	雲水壇調詞	0	2	2	神興寺(1661), 表訓寺(1662)
11	諸般文(請文)	1	1	2	楡岾寺(1542), 神興寺(1670)
12	緇門警訓	2	0	2	表訓寺(1532·1539)
	합계	19	13	32	

45) 본 연구에서는 개별 판본을 모두 ‘종’으로 표기하였으나 ‘주제별 분석’에서는 서적의 종류와 구분하기 위하여 ‘종’을 대신하여 간행 횟수의 의미로 ‘회’로 표기하였다.

가장 많이 간행된 불서는 5회 간행된 『妙法蓮華經』이다. 『妙法蓮華經』은 천태종의 근본 경전이면서 隨意科의 하나로 조선시대 대표적인 공덕경으로 인식되어 166종의 판본이 알려져 있으며, 성달생계, 갑인자계, 을해자계, 대자본계, 언해본계 등으로 계통을 구분하고 있다.⁴⁶⁾ 강원도판은 조선 전기 3종은 모두 성달생계이며, 후기 2종 가운데 표훈사판은 1450년 왜저지에 간행된 갑인자본을 저본으로 하는 갑인자계, 신흥사판은 1470년 정희왕후 발원본을 저본으로 하는 대자본계이다. 3회 간행된 『父母恩重經』 또한 대표적인 공덕경으로 조선시대 85종의 판본이 알려져 있다. 이 두 경전은 조선시대 가장 많은 간행 빈도를 보이는 불서들이며, 경상도·황해도 등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보인다.

4회 간행된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知訥이 宗密(唐)의 『法集別行錄』에서 요점을 뽑고 자신의 견해를 붙인 것이며, 『禪源諸詮集都序』와 『高峯和尚禪要』도 각각 3회, 2회 간행되었다. 이들 사집과는 조선 전기에 51종, 조선 후기에 63종 등 모두 114종이 전하며, 그 가운데 103종이 16-17세기에 간행된 만큼 이 시기 강원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⁴⁷⁾ 강원도에서도 16세기 6회, 17세기 3회 등 16-17세기에 9회의 사집과 간행이 있었으며, 『大慧普覺禪師書』는 간행되지 않았다. 간행 사찰은 1578년의 월정사판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를 제외하면, 8회가 금강산의 유점사와 표훈사에서 이루어졌으며, 전기에는 유점사(4회)에서, 후기에는 표훈사(3회)에서 간행을 주도하였다. 이와 함께 사미과 교재인 『誠初心學人文』이 3회, 『緇門警訓』이 2회, 『禪林寶訓』이 1회 간행되어 사미과와 사집과 등 강원 교재가 모두 15회 간행되어 승려의 학습용 교재가 전체 간행 불서 가운데 24.6%로 비중이 높다.

2회씩 간행된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雲水壇誦詞』, 『諸般文』은 사찰의 수록재 또는 일상의 의식집이며, 1회씩 간행된 『茶毘文』, 『僧家日用時默言作法』, 『大藏一覽經造像品』,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를 포함해 의식집은 모두 12회의 간행 빈도를 보인다.

강원도 간행 불서는 선종류의 강원 교재와 예참류의 불교의식집의 간행 비중이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다른 지역의 주제 분포는 물론 조선시대 불서 간행의 대체적인 추이와 공통되는 현상이다. 강원도 사찰판만 확인되는 서적은 조선 전기까지는 『佛說續命經』, 『寂滅示衆論』, 『訓蒙要鈔』, 조선 후기는 『雪巖禪師亂藁』, 『大圓集』, 『江原道旌善郡太白山淨巖寺事蹟』, 『神興寺遊山錄』 등이 있다.

3.4 간행 참여자

우리나라 佛書의 권말에는 간기와 함께 간행 불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일반적으로 수록된다. 이들 명단은 서적의 간행을 기획하고 주관하는 化主·幹善, 필요 재정을 지원하는 施主, 목판의 마련과 판각을 위한 기술자인 鍊板·刻手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간행 주관자나 조력자도 중요한

46) 정왕근(2012), 201.

47) 송일기(2016), 408-409.

역할을 하였지만, 서적의 간행 측면에서 볼 때, 저본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서사와 교정, 판재를 마련한 鍊板과 글자를 새긴 刻手의 역할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 사찰판 61종 가운데 刻手가 확인되는 판본은 1481년 치악산 상원암판 『寂滅示衆論』의 洪宝千·金長孫부터 1862년 금강산 건봉사판 『佛說大目連經』의 玩琦까지 41종이며, 수록된 인원은 전기가 20종 68명, 후기가 21종 108명 등 연인원 176명이다.⁴⁸⁾ 중복을 제외하면 112명의 각수가 확인되는데, 조선 전기는 48명의 각수 중 1명만이 일반인이고 모두 승려이며, 후기는 64명의 각수 가운데 일반인이 15명인데, 이는 조선 후기 서적 간행의 증가에 따른 민간 刻手의 활동 범위 확대를 보여준다. 2개 이상의 불서 간행에 참여한 각수는 38명이며, 3회 이상은 13명이다.

<표 7> 3회 이상 참여 각수 현황⁴⁹⁾

시기	이름	횟수	간행 사찰(연도)	
			강원도	기타 지역
조선 전기	智玄	3	月精寺(1576·1578), 普賢庵[楡岾寺](1583)	菩薩寺(淸州, 1576)
	罔祖	3	楡岾寺(1521·1522), 上菴(1521)	
	妙嚴	3	楡岾寺(1590), 普賢庵[楡岾寺](1583), 月精寺(1576)	
	覺連	3	楡岾寺(1521·1522), 上菴(1521)	石崙菴(聞慶, 1537)
	惠玉	3	表訓寺((1539·1545·1549)	西臺寺(珍山, 1536)
	智熙	3	表訓寺(1539·1540·1542)	西臺寺(珍山, 1530·1536), 石頭寺(兎山, 1543)
조선 후기	玄桂	7	神興寺(1658·1658·1661·1661·1661·1666), 表訓寺(1663)	
	六行	7	神興寺(1658·1658·1661·1661·1661·1666), 表訓寺(1663)	靈井寺(密陽, 1638)
	自雄	7	神興寺(1658·1658·1658·1661·1661·1661·1666)	
	信哲	4	神興寺(1666·1670·1670), 表訓寺(1663)	松廣寺(順天, 1633·1635·1647), 普賢寺(寧邊, 1681)
	天律	3	表訓寺(1662·1662·1663)	
	坦玄	3	表訓寺(1662·1662·1663)	
	太應	3	神興寺(1670·1670), 表訓寺(1663)	

조선 전기는 11개 사찰의 28종 가운데 17종이 표훈사·유점사 두 곳에서 간행되어 각수 또한 이 사찰에 집중되어 있다. 표훈사·유점사판에 나오는 각수는 중복을 제외하고 33명이며, 이들은 다른 사찰판의 각수로도 활동하였다. 유점사판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1521)』와 『請文(1522)』의 각수 罔祖·覺連는 楊口 兜率山 上菴의 『蒙山和尚六道普說(1521)』에, 『禪源諸詮集都序(1583)』

48) 조선시대 사찰 각수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김상호(1990)에 의하여 시작되어 각수 연구의 기본 토대를 제공하였다. 강원도 사찰판은 11개 사찰의 19종의 불서에 수록된 84명의 각수가 조사되었다.

49) 기타 지역은 김상호(1990) 등 선행 연구에서 각수명이 동일한 경우를 뽑은 것이다.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으나 활동 시기가 비슷한 경우 활동 지역을 참고하기 위하여 기타 지역에 추가 표기하였다.

와 『禪家龜鑑(1590)』의 각수 妙嚴·智玄은 이보다 앞서 월정사관 『訓蒙要鈔(1576)』·『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1578)』에 참여하여 오대산에서 금강산으로 왔음을 알 수 있다. 표훈사관은 智熙·惠玉이 3중, 靈隱(靈隱)·惠環·法蓮(法蓮)·惠環이 2중의 불서 개관에 참여했으며, 1중의 서적에 참여하였던 信雲·敬敏과 祖英은 각각 寶盖山(칠원) 深源寺의 『妙法蓮華經(1574)』⁵⁰⁾과 금강산 長安寺의 『妙法蓮華經(1575)』에도 참여하였다.

조선 후기는 9개 사찰의 33종 가운데 20종이 신흥사와 표훈사에서 간행되었고, 그 가운데 18종이 1658년부터 167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다. 참여 각수는 표훈사가 29명, 신흥사가 22명으로 짧은 시기에 간행되어 중복 참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신흥사에서 함께 활동한 玄桂·六行·自雄은 7종의 서적 간행에 참여하여 가장 많은 서적을 관각하였다. 自雄은 신흥사관 7종에, 玄桂·六行은 신흥사관 6종과 표훈사관 1종에 함께 참여하였다.⁵¹⁾ 信哲·太應도 각각 4종과 3종의 신흥사와 표훈사관의 경전 관각에 참여하였다. 신흥사와 표훈사의 각수가 공통으로 참여한 서적은 표훈사관 『妙法蓮華經』인데, 참여 각수 인원이 조사된 강원도 사찰관 가운데 가장 많은 20명이었다.

<표 8> 강원도 사찰관 간행 참여 각수·교정·서사자 현황

서명	연도	사찰명	刻手 / 鍊板	校正	書寫
寂滅示衆論	1481	上院庵	洪宝千, 金長孫		清融, 成志
蒙山和尚六道普說	1521	上菴	罔祖, 覺連, 惠云		三玄
蒙山和尚法語略錄(언해)	1521	楡岾寺	罔祖, 覺連		
請文	1522	楡岾寺	罔祖, 覺連, 無跡		安玉廉, 極詞
緇門警訓	1539	表訓寺	靈隱, 智熙, 惠玉		
誠初心學人文	1540	表訓寺	智熙 / 性明		
禪林寶訓	1542	表訓寺	智熙 / 信正		
妙法蓮華經	1545	表訓寺	惠玉, 惠環, 法蓮, 寶仁, 靈隱, 玉賢, 志英, 熙言 / 惠輪, 惠修		
禪門拈頌集	1549	表訓寺	玲修, 惠允, 性修, 祖英, 法蓮, 道庵, 惠玉, 妙雲, 玲悟, 双淳, 惠環, 惠湜, 談玄, 敬衍 / 性道, 罔正		
禪源諸詮集都序	1553	楡岾寺	崇贊, 海性, 曇玄, 性能, 德雲, 正心, 崇悟, 義明 / 會修	慧遠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1554	楡岾寺	崇贊		
誠初心學人文	1572	表訓寺	智元, 信雲, 敬敏		
妙法蓮華經	1574	深原寺	祖英, 打牛, 敬敏, 德淳		
妙法蓮華經	1575	長安寺	信雲 / 印經: 催泉, 普正		慕思
誠初心學人文	1576	桐華寺	信玄, 有靈, 義淡		
訓蒙要鈔	1576	月精寺	智玄, 妙嚴		德黜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1578	月精寺	智玄, 師俊, 景祥, 道淳		

50) 深源寺의 『妙法蓮華經(1574)』에 참여한 祖英·德淳은 龍仁의 瑞峯寺의 『妙法蓮華經(1578)』의 각수로도 참여하였다.

51) 신흥사관 『諸般文(1670)』의 권말에 玄桂, 六行은 각수가 아닌 ‘前住持兼判事’의 신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玄桂는 『諸眞言集(1658)』의 변상도와 판화를 새겼다.

서명	연도	사찰명	刻手 / 鍊板	校正	書寫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1583	楡岾寺			圓應
禪家龜鑑	1583	楡岾寺	金守香		李秀倫
禪源諸詮集都序	1583	楡岾寺	妙嚴, 智玄, 太行 / 南於叱達		印徽
禪家龜鑑	1590	楡岾寺	妙嚴		
諸眞言集	1658	神興寺	六行, 玄桂(변상), 自雄, 慈敏.		
佛說大報父母恩重經	1658	神興寺	六行, 玄桂, 自雄		
金剛頂瑜伽念珠經揭	1658	神興寺	自雄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661	神興寺	六行, 玄桂, 自雄, 道泉, 林公, 一熏, 侍達, 守仁, 德肥, 吳德命, 吳德○, 爾介, 虛英, 虛○		
妙法蓮華經	1661	神興寺	六行, 玄桂, 自雄, 林公		
雲水壇誦詞	1661	神興寺	六行, 自雄, 慈敬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661	神興寺	六行, 玄桂, 自雄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1662	表訓寺		義謹	
禪源諸詮集都序	1662	表訓寺	坦玄, 大安, 朴永男, 信熙, 天律, 尙輝, 貞淳, 致寬, 幸禪, 釋遷, 性間, 法說 / 寬仁, 省梅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1662	表訓寺	朴, 仁, 王(관심 하단) / 柯恰	義謹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662	表訓寺	姜勝男, 坦玄, 大安, 信熙, 天律, 法說, 虛遠, 性間, 釋遷, 幸禪, 省梅, 貞淳 / 戒燈, 戒烟, 寬仁	義謹	
雲水壇誦詞	1662	表訓寺	姜勝男 / 柯恰		
妙法蓮華經	1663	表訓寺	坦玄, 六行, 處祥, 玄桂, 思淨, 天律, 贊梅, 性悟, 教能, 太心, 尙輝, 太應, 雙運, 道下, 清稔, 德元, 信哲, 雙日, 方益, 朴永男	義謹	
大顛和尚注心經	1666	神興寺	玄桂, 信哲		
佛說廣大歲經	1670	神興寺	信哲, 慧眼, 太應, 是滌, 智雲, 惠元, 冲擇		
諸般文	1670	神興寺	信哲, 慧眼, 太應, 是滌, 智雲, 惠遠, 冲擇		
雪巖禪師亂藁	1712	高達山	體峇, 俊尙		
神興寺遊山錄	1772	神興寺	權大成		
大藏一覽經造像品	1824	楡岾寺	最談, 尹啓昌, 田慶錫	華嶽	影海
佛說天地八陽神呪經	1839	石臺庵			高景煜
維摩詰所說經	1854	聖住庵	田永聖, 洪箕煥, 金斗衡, 安亨老, 盧慶善 / 金鼎秀, 金昌圭		吳旻秀
佛說無量壽經	1861	乾鳳寺	性典, 李容圓 / 圓悟		懶隱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1861	乾鳳寺	玩琦 / 圓悟		懶隱
佛說大目連經	1862	乾鳳寺	玩琦 / 圓悟		懶隱
金剛般若波羅蜜經(육조)	1867	神溪寺		懶隱	懶隱
藥師琉璃光七佛本願功德經	1869	楡岾寺			懶隱

* 밑줄은 2회 이상 참여자임

각수 이외에 교정자는 조선 후기 6종 등 모두 7종의 권말에서 확인된다. 그 가운데 조선 후기 楓潭 義謹은 1662년 무렵 표훈사에서 간행된 7종의 서적 가운데 4종의 서적에 ‘證校’의 역할로 참여했으며, 華嶽 知濯은 유점사의 『大藏一覽經造像品』, 懶隱 保郁은 『(六祖)金剛般若波羅蜜經』의 교정자로 참여하였다. 書寫者는 전기 8종 등 18종에서 확인되며, 대체로 한 차례 서사에 그치고 있으나 19세기 중반 금강산 일대의 서적 간행을 주도한 懶隱은 건봉사판 3종, 유점사판·신계사판 각 1종 등 모두 5종의 登梓本을 서사하였다. 이들 교정과 서사의 참여자는 대체로 승려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4. 맺음말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강원도 지역에서 開板·藏板된 불서를 조사하여 시기별, 지역별, 주제별 분석과 함께 참여 각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강원도 사찰판은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몇 가지 특징을 보였으며,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전기에 113개, 조선 후기에 158개의 사찰이 있었던 강원도 지역에서는 18개 사찰에서 61종의 불서가 開板·藏板되어 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시기별 판본을 보면 조선 전기까지 28종, 조선 후기에는 33종으로 후기에 다소 많이 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6세기 25종, 17세기 19종 등 16~17세기에 대다수인 44종(72%)이 분포하여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등 다른 도의 시기별 분포와 동일한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꾸준히 이어지기보다는 특정 시기에 간헐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18세기에 3종으로 급감하던 것이 19세기에 11종으로 증가하였는데, 조선 후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다른 道와는 차이를 보이는 강원도 사찰판의 특징이다. 이는 승려의 주석·편집본 제작과 보급, 금강산 만일회와 懶隱에 의한 서적의 간행 등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셋째, 지역별로는 금강산의 표훈사 16종, 유점사 10종, 설악산의 신흥사 13종 등 금강산·설악산 지역 6개 사찰에서 46종(75.4%)이 간행되어 강원도 지역 서적 개관 불사와 서적 보급의 중심지역 역할을 하였다. 그 외에 보개산의 3개 사찰에서 4종, 오대산 월정사와 청평산 문수사에서 각 2종이 간행되는 등 대부분이 北으로는 금강산, 西로는 보개산(철원), 南으로는 치악산(원주)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 분포하며, 이들 사찰은 대부분 금강산과 한양을 축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태백산맥의 서쪽 지역에 있었다.

넷째, 주제별로는 宗義類 24종(39.3%), 경전류 19종(31.1%), 禮懺類 12종(19.7%)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종의류는 사미과 6종, 사집과 9종 등 강원 교육을 위한 학습서의 비중이 높았고, 禮懺類는 수륙재와 승려 생활에 관한 의식집으로 승려 학습과 생활, 수륙재와 같은 불교 의식집의 간행 비중이 높았다. 경전류는 법화부의 『妙法蓮華經』이 4개 사찰에서 5종, 경집부의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이 3개 사찰에서 3종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이 두 불서는 功德經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제 분포는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조선시대 사찰판 불서 간행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다섯째, 강원도 불서 간행이 금강산과 설악산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각수 또한 대체로 이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41종의 불서에 모두 176명의 각수명이 있었고, 중복을 제외하면 모두 112명이며, 승려가 9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3종 이상의 불서 개관에 참여한 각수는 13인이며, 조선 전기에는 유점사의 智玄·罔祖·妙嚴·覺連, 표훈사의 惠玉·智熙이 있으며, 智玄·妙嚴은 유점사에 앞서 오대산 월정사의 불서 간행에 참여하였다. 조선 후기는 신흥사의 玄桂·六行·自雄·信哲·太應, 표훈사의 天律·坦玄이 3회 이상 참여한 각수이며, 玄桂·六行·自雄은 7종의 불서 간행에 참여한 대표 각수였다.

여섯째, 강원도 사찰 간행 불서의 책판이 다수 현전하고 있다. 설악산 신흥사 간행 13종의 경판은 일부 결락이 있으나 판각되었던 신흥사에, 보개산 聖住庵과 石臺庵의 경판 2종도 서울 봉은사에, 淨巖寺의 경판 1종도 월정사에 전하고 있다.

이 연구는 도 단위 사찰판 불서 연구의 하나로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에 이어 이루어진 것이다. 봉건시대 공급자 중심의 서적 간행은 필요에 따른 대상 불서의 결정과 저본 마련, 간행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자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가능했던 만큼 어느 정도 규모와 역량을 갖춘 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만큼 향후 지역 간 간행 불서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사찰의 역사와 성격, 위상의 변화를 살피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강원도 지역 사찰의 중심지였던 금강산의 전통 사찰은 한국전쟁으로 대부분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전통 사찰의 복원과 문화콘텐츠 개발 등 금강산을 매개로 하는 남북의 분단 극복과 교류 협력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상호. “朝鮮朝 寺刹板 刻手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 김은진, 송일기. “몽산 어록 조선본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권 1호(2019). 61-84.
- 김현정. “1658-1661년(順治年間) 신흥사 수록재 의식집의 간행.” 『강좌미술사』 45(2015). 143-179.
- 남권희. “경상도 지역에서 간행된 불교 서적에 관한 연구.” 『韓國書誌學論集』. 서울: 민창문화사, 1999. 351-456.
- 박민희. “智異山 所在 寺刹의 朝鮮時代 간행불서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9.
- 박상국. 『전국사찰소장목록판집』. 한국: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7.
-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 문화재: 2019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 18(강원도, 전라남도3)』. 대전: 문화재청, 2019.
- 손성필. “16세기 사찰판 불서 간행의 증대와 그 서지사적 의의.” 『서지학연구』 54(2013). 359-379.
- 송일기. “四法語의 편찬과 유통.” 『서지학연구』 63(2015). 63-90.
- 송일기. “황해도 사찰간행 불서의 서지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권 1호(2016). 395-416.
- 송일기, 김동연. “조선시대 사찰본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65(2016). 91-117.
- 송일기, 박민희. “새로 발견된 湖南板 〈父母恩重經諺解〉 4종의 書誌的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권 2호(2010). 209-228.
- 유근자. “신흥사 경판의 조성 배경과 사상 - 大顛和尚注心經. 諸眞言集. 佛說廣本大歲經.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 大圓集 등을 중심으로 -.” 『강좌미술사』 45(2015). 107-141.

- 이봉열. “京仁地域 佛書版本의 特性 및 意義.”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5.
- 이옥금. “朝鮮朝 湖南 寺刹版에 關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祥明女子大學校 大學院. 1988.
- 정왕근. “朝鮮時代 <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 최경훈. “조선시대 강원도 지역의 목판 인쇄 문화 연구.” 『강원사학』 34(2020). 91-125.
- 최동원. “朝鮮時代に 刊行된 『禪源諸詮集都序』의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8.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Dong-won. 2008. *A Biblical Study on Seon Won Je Jeonjip Doseo Published in Joseon Dynast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Korea.
- Choi, Kyung-hun. 2020. “Research on the woodblock printing culture in Gangwon Province in Joseon dynasty.” *Kwangwon Historical Review*, 34: 91-125.
- Jung, Wang-kun. 2012. *A Bibliographical Study on Lotus Sutra published in Cho-sun dynasty*.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Korea.
- Kim, Eun-jin, & Song, Il Gie. 2019. “A study on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Mengshan analects in Joseon Dynas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1): 61-84.
- Kim, Hyeon Jeong. 2015. “The woodblocks in Shinheungsa-temple produced in 1658-1661.” *The Art History Journal*, 45: 143-179.
- Kim, Sang-ho. 1990. *A study on the engravers of temple woodblock publications in Choson Dynasty*.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 Lee, Bong yuel. 1995. *Characteristic and Significance of Buddhist classics published in and around Seoul and Incheon*. Master's degree thesis. Graduate School of Sookmyoung women's University, Korea.
- Lee, Ok guem. 1988. *A Bibliographical study on printing the Buddhism scriptures in Honam district*. Master's degree thesis. Graduate School of Sang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 Nam, Kwon-hee. 1999. “A Study on publishing of the Buddhist book in Gyeongsang province.” *A Collection of Korean Bibliography* (pp. 351-456). Seoul: Minch'ang press.
- Park, Min-hee. 2009. *A Study on buddhist scriptures published in temples of Jirisan (智異山)*

- in Joseon dynast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Korea.
- Park, Sang-kook. 1987. *The woodblock Catalog of Buddhist temple in Korea*. Seoul: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2019. *Korean Buddhist Cultural Heritage: inspection of temple woodblocks 8 (Ganwon-do, Jeollanam-do 3)*. Daeje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Sohn, Seong-phil. 2013. "A Study on the Increase of the Buddhist Publication in the 16th Century and Its Significance of the Bibliographical History."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54: 359-379.
- Song, Il-Gie. 2015. "Compilation and Distribution of Four Buddhist Sermons."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63: 63-90.
- Song, Il-Gie. 2016. "A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Buddhist Scriptures Published in Temples Located in Hwanghae-do Province." *Journal of the Korean studi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1): 395-416.
- Song, Il-Gie, & Kim, Dong Yeon. 2016. "A Bibliographic Study of Bupjip Byulhangrok Jeoryo Byungip Sagi Published in Joseon Dynasty."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65: 91-117.
- Song, Il-Gie, & Park, Min-hee. 2010. "A Bibliographical Study on 4 Newly Found Jeolla-do Editions of Bumoeunjungkyeongha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2): 209-228.
- Yoo, Geun-ja. 2015. "Study on the Ideological Background which led to the Creation of the Printing Woodblocks of Buddhist Sutras in Shinheungsa Temple." *The Art History Journal*, 45: 107-141.